

HKJ 2014

발행처 : HKJ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한국무용파트
편집인 : 안지령
편집부장 : 이경주 / 학생부장 : 함예은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산 17번지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331호
전화 : 02-2220-1334
팩스 : 02-2297-7746
e-mail : dambicom@hanmail.net
인쇄소 : 한국문화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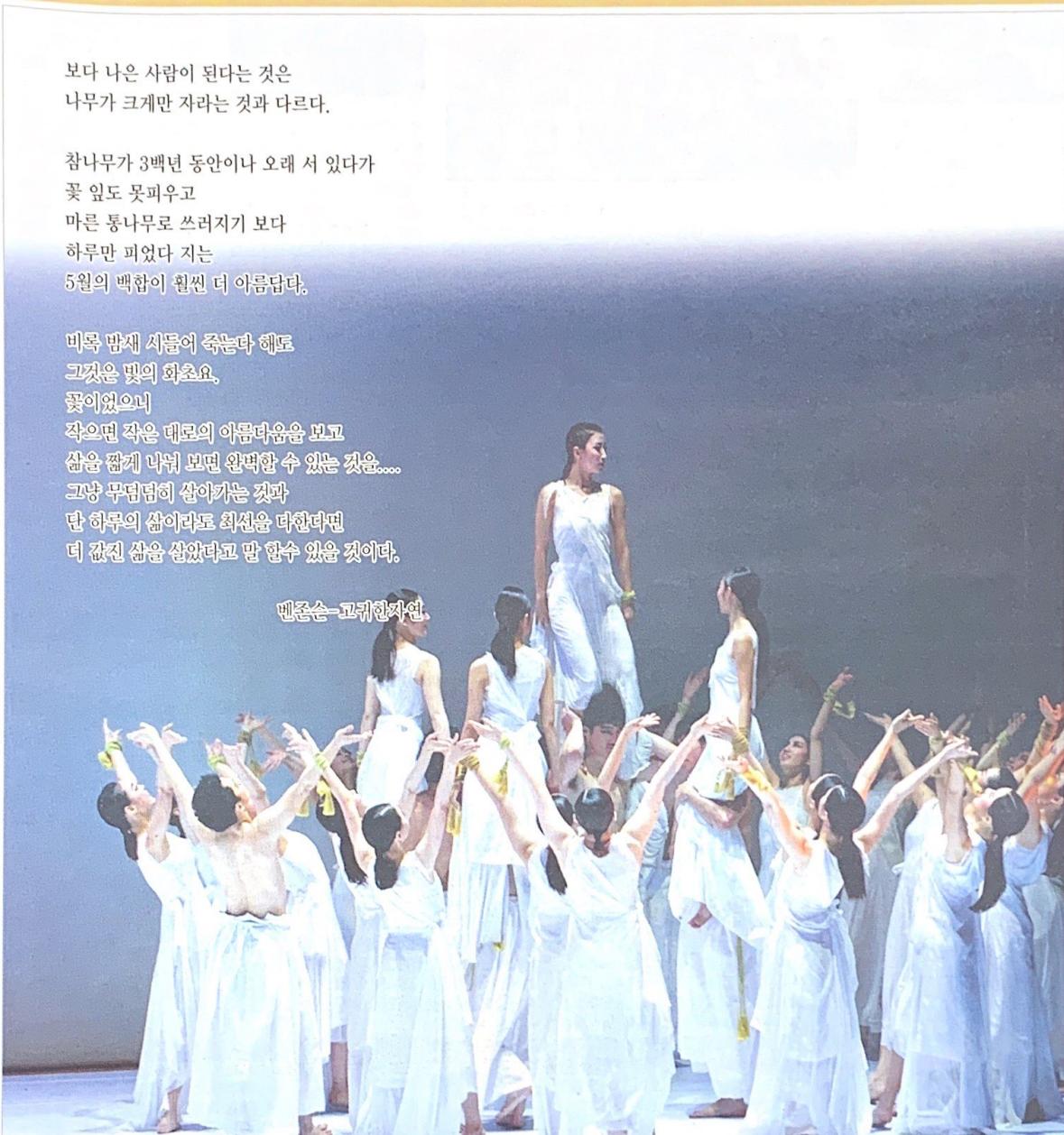
내일의 춤꾼 내일의 예술가가 있는 HKJ(Hanyang Korean dance Journal) 2014년 1월 28일 / 제13호 HKJ

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무가 크게만 자라는 것과 다르다.

참나무가 3백년 동안이나 오래 서 있다가
꽃잎도 못피우고
마른 통나무로 쓰러지기 보다
하루만 피었다 지는
5월의 백합이 훨씬 더 아름답다.

비록 밤새 시들이 죽는다 해도
그것은 빛의 화초요,
꽃이었으니
작으면 작은 대로의 이름다움을 보고
삶을 짧게 나눠 보면 완벽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무덤덤히 살아가는 것과
단 하루의 삶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더 값진 삶을 살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준순-고귀한자연.



지 면
안 내

2 우리춤연구소 어제와 오늘

3 춤으로 여는 세상

4·5 한양&㈔ 춤! 춤! 춤!

6 HKJ의 한율

7 냉정과 열정사이

8 HKJ 2013 종합

2013 우리춤연구소 국내학술심포지엄

“융합적 담론으로 본 한국예술의 이해와 미래”



2013년 11월 23일 한양대학교 IT·BT관에서 우리춤연구소와 한국무용사학회 공동주최인 제7회 ‘융합적 담론으로 본 한국예술의 이해와 미래’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연구소를 목표로 출발한 우리춤연구소가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복합 연구를에 집중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



되었다.

올해부터는 “융합적 담론으로 본 한국예술의 이해와 미래”라는 가치 아래 예술과 과학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했다.

역사적으로도 과학적 발견이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내고 그 것이 새로운 예술분야나 예술 기법에 영향을 줌으로써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킨다. 본 학술심포지엄을 통해서 상이한 두 분야가 어떻게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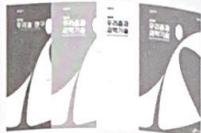


로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지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올해는 총 다섯 가지의 주제로 김영운, 이종숙, 조성호, 정해운, 양현승 교수와 연구자들이 발제를 하였고, 토론으로는 배인교, 한경자, 남상원, 김계원, 박종일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경주 기자

우리춤 연구소 논문집 발간
“우리춤과 과학기술”
제20집~23집



우리춤연구소는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연구소를 목표로 매년 3회 발간하던 학술지를 4회 발간으로 증간하고, ‘우리춤연구’의 제호를 올해부터 ‘우리춤과 과학기술’로 변경하면서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복합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정기적인 발간을 유지하며 역사, 교육, 기호, 음악, 미술, 무용, 공학 등을 비롯해 통합적 학문과의 연계체제로 보다 더 폭넓은 연구와 질적연구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경주 기자

제6회 우리춤연구회 강습회 “산조춤”



우리춤연구회는 2008년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연 1회 강습회를 개최했다. 올해도 6월 22일 토요일에 진행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강습회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강태홍류 ‘산조춤’으로 진행되었다. 강태홍류 산조는 김창조에게 사사한 가락에 강태홍 특유의 가락을 첨가해 만들었다고 한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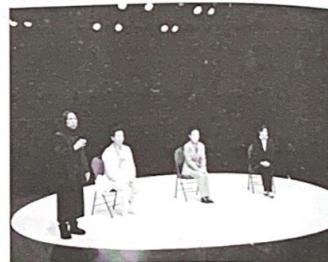


취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세간 조시를 첨가해서 연주하기도 한다. 강태홍류 산조는 가락이 복잡하고 불규칙하며, 엇박이 많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춤 특유의 내재된 정·중·동의 사용과 가락의 특징이 많은 이번 산조춤을 통해 미적 아름다움을 배우고, 강태홍류 산조춤이 지난 길은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2005년 우리춤 연구소가 설립되기 전 춤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우리춤연구회’ 2003년 첫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학제간 통합연구와 정체성을 ‘춤’ 속에 찾아보기자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왔다.

최근, 융합적 관점에서 우리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과거와 현재를 담색하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한양우리춤 포럼’이라는 실천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어진 이번 춤포럼은 첫 번째로 김윤지의 [춤추는 미인도-그 해석과 이해], 두 번째로



김경숙의 [우리춤 가르치기-전통춤 승무], 마지막으로 김종덕의 [Goodbye Mom(ver.2)]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의 우리춤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이경주 기자

교육재능기부 - <자.아.탐.색- 꿈트리>



재능기부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일컫는다.

2013년 정동구 재단이 주최한 <제 3회 대학(원)생 여름방학 교육재능기부 공모전>에서 KUM무용단의 ‘춤다락’ 팀은<자.아.탐.색-꿈트리>의 기획안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기획안을 토대로 온드림스쿨-다빈치교실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2013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덕적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자.아.탐.색-꿈트리>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예술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을 중심으로 New 융합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예술 만들기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미인드로의 전환을 목

표로 설정하였다.

수업은 5회차로 나뉘어 5일간 진행되었다. 1회차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릴레이 몸담색>을 통해 놀이 형식의 수업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2회와 3회차에는 본 공연을 위한 과제지도를 실시했다.

4회차에는 공연 리허설을 실시했으



며, 5회차 본 공연으로 이번 수업이 마무리됐다. 학생들은 공연 과제로 배운 <온드림부채춤>, <콩떡빙수 북춤>을 성공적으로 공연함으로써 자신감과 표현력이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아름다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서현 기자

진로interview

“자유롭게 사고하고 도전을 두려워 하지 마라”

신경아(한양대 우리춤 연구소연구원)

1. 외국에서 어떠한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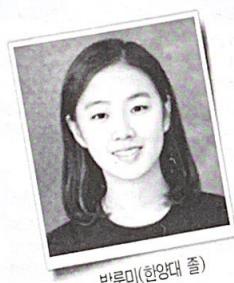
제가 이수한 프로그램은 미국 맨하튼에 위치한 New York University '공연예술행정(Performing Arts Administration)'입니다. 교육대학원의 석사과정으로 총 2년 코스이며 전공필수, 선택과목, 인턴쉽을 포함해 약 54학점을 이수하면 석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술법, 예술경영학, 개론 등이 기본적인 이론 과목 외 비즈니스 스쿨에서 마케팅, 회계, 통계, 소비자 행동, 조직론,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 및 운용해보는 단계로 예술기관에서 인턴쉽을 수행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녔던 뉴욕대는 미국의 타 예술경영 프로그램에 비해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 더욱 더 실용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경영학과 과목들을 미국 최고의 텁 비즈니스 스쿨인 Stern School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수업의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학생들과 수강함으로써 사고의 깊이와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뉴욕대 예술행정 학과가 지난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입사준비과정 (계기 및 필요한 준비과정 등등)

이 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학부생일 때, 무용학과를 졸업해서 무용수가 아닌 다른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지, 나에게 맞는 직업이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문화예술기관에서 행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기관에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원에 대한 절차나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기에 이 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준비과정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내용은 없지만 이력서엔 성적을 꼭 기입하기 때문에 꾸준히 성적관리를 하는 것

2. 한국에서 일할 때 외국에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장단점)

분명 단점도 있었겠지만 장점이 너무 많아 단점을 인식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현재 활동하는데 모두 큰 장점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전공과 분야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 좋은 기회도 많이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혼자서 무엇이든 해결해야 하니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다양한 전공,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적인 경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성적인 영어교육 열풍에는 저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예술경영 분야는 그 어떤 것 보다 국제교류가 중요하고 활용성이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술분야 즉 국제 교류는 계속 증가되고 있죠. 따라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외국의 예술

경향 및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어능력이 중요하니 적어도 남의 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 한국예술경영 교육과 미국예술경영 교육이 어떤 점이 다른지

한국과 미국 대학교 프로그램을 내용적으로 비교하면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예술경영이란 전공이 미국에서 먼저 하나의 실용 학문으로 정착을 했고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예술경영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폭되면서 미국 프로그램을 많이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과와 과목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예술경영 프로그램을 가진 학과의 목표와 학생들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학과의 목표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필드에서 경쟁력 있는 예술분야 행정자로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학생들 역시 이미 예술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전문분야를 더 심화하기 위해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한국은 예술경영을 전공한 학생들이 필드에서 활동하기보다 예술전공자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개념으로 여기는 것이 좀 더 강하고 예술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역시 예술경영 프로그램 이수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 진로를 고민하는 무용전공 학생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학부 때부터 진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무용학과 졸업 후 몇 년 뒤 무용과 관련된 일을 하는 졸업생들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무용분야 전문인이 되기 위해 4년을 관련 교육으로 트레이닝 받았는데 만약 무용을 하지 않는다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드물겠죠. 자신이 가진 재능과 관심이 끝까지 일치한다면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입학할 땐 모두 무용으로 빛을 발휘해보고 싶고 오직 한 방향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은 편협한 사고로 제한된 진로에 집착하지 않고 학부 때만큼은 무엇이든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다양한 자식과 세계를 흡수하란 것입니다. 다양한 전공분야 사람들과의 교류, 국내외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어학공부... 등 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무용과 학생들과 견주지 말고 일반 학생들과도 견주면서 무엇이든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의 간격을 좁히면서 타협점을 찾고 능력을 성실히 개발해 나간다면 어느 분야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은 기자

학우interview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김서하 기자



이 중요했고,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따놓거나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 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소개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지 미리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2.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무용수 직업전환 지원, 공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진료비 지원, 상해에 방을 위한 트레이너 파견, 공연 출연료 지원 사업을, 센터 행사로 연 1회 무용인 한마음축제 학술 심포지엄, 후원인의 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직업전환컨설팅, ABC&BAHA 프로그램 강사양성 등 무용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센터에서 하는

일은 행정업무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는 일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 일의 장·단점

일의 장점은 시행되는 예술제도에 대해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전공과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지원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의 단점은 시간적 제한이 있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점인 것 같아요.

4.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춤으로 꿈꾸며 미래를 열어간다!

창작발표회

2013년 5월 9일, 10일(2일간) 한양대 무용과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창작발표회가 있었다. 학생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창의력과 실력을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개성 있는 무대를 보여주는 이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작품의 구성, 음악, 의상까지 모든 기획을 학생 스스로가 작업을 하면서 또 한번 성장할 수 있었다. 작은 무대에서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번 무대는 감동과 환희의 여운을 남겼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정기공연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한양대 무용학과 정기공연의 막이 올랐다. 강사 안지형 안무 '봄 아리리', 강사 김경숙 안무 '승무', 마지막으로 남학생들이 함께한 창작 작품으로 강사 이점운 안무 '강강술래' 이렇게 세 작품이 공연에 올라갔다. 그동안 크고 작은 공연들이 있었지만 학생들 전체가 공연에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은 공연이다. 동기를 비롯하여 선배들과 함께 만들어 낸 공연이라 짧지만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었다. 각각의 작품들이 다른 성격과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한국무용 학과의 위상을 드높여주었다.

졸업발표회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한양예술극장에서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졸업발표회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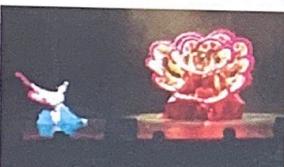
4학년까지의 대학 생활을 졸업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졸업 작품'으로 결실을 맺었다.

대학 생활의 마무리이자 앞으로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졸업발표회를 통하여, 이 날 졸업생들은 박수와 환호 속에서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힘찬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함예온·황윤재 기자



"세계 쿠장학회 오프닝공연"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쇼케이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세계 쿠장학회 & 대한 쿠담도 협회 (IAP & KPBA2013)가 열렸다. 세계 쿠장학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사 학회 중 하나로 지금까지 주로 미국, 유럽, 일본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회이다. 그 이외 국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국내, 외국 의사 약 500명이 참가한 이 학회에서 재학생 2, 3, 4학년 학부생들과 쿰 무용단 김소영, 김윤진 단원이 오프닝 무대

에 올랐다. 이 날은 우리나라의 이름 다음과 전통을 알리는 '부채춤'과 '강강술래'를 공연하였다.

한국의 화려함과 이를다움을 볼 수 있는 부채춤을 국·내외 의학 관련 분들에게 선보였고, 뛰어난 강강술래를 하며 학회 참여자들과 손을 잡으며 춤 추면서 축하무대를 즐겼다. 학회 참여 외국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열정적으로 준비한 학부생과 쿰 무용단 단원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공연을 올렸다. 손수연 기자

도심서 즐기는 '우리가락 한마당'

과 학부생들은 타악퍼포먼스 '아작'과 함께 삼고무를 선보였다.

'아작'은 두드려 소리 나는 모든 일상의 물건들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여 색다른 리듬을 만들어냈고 파워풀한 연주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쾌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졌다.

이와 함께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전공 학생들은 전통 삼고무로 화려하고 신명나는 공연으로 기존 공연의 형식적인 틀을 탈피하면서 관객들에게 감동과 에너지를 전달했다. 일교차가 심한 탓에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공연장을 찾았던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무대는 또렷했다.

인천부평풍물대축제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은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며 풍물이 지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경험하였다.

김지연 기자



2013 Kum Dance Company Performance

〈우리시대 춤과 의식전〉 서연수(선생님) 안무의 "참긴말Ⅱ"은 9월 28일, 29일 이틀간 늦은 저녁 6시에 M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제2회 한양대학교 무용학 박사

현대춤 연구〉 서연수(선생님) 안무의 "Red symphony"는 12월 6일 금요일 늦은 저녁 7시 30분에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공연되었다.

전미라 기자

Congratulation



안지형

2013 재단법인 유ナイ티드 문화재단 무용부문 공로상 수상



이영림

2013 PAF 춤 연
기상 "그 곳에서"



서연수

- 2013 PAF인부상 "Red symphony"
- 2013 베스트 춤 레퍼토리상 "참긴 말 ver.2"



김예온(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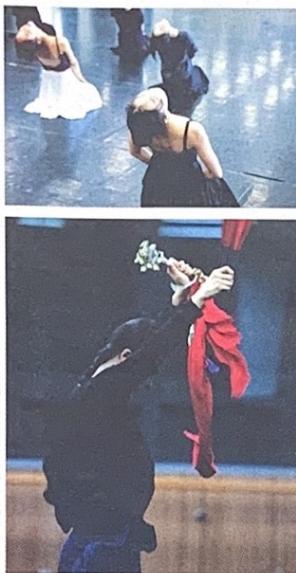
제 50회 전국신인 무용경연대회 한국 무용 창작부문 동상

20th “2013 신화상생(神話相生)”

김운미·쿰 무용단은 “2012신화상생·두 번째 이야기” 공연에 이어 “2013신화상생”이 2013년 11월 9일 (토) 오후 4시, 8시 두 차례 호암아트홀에서 공연되었다.

1993년 쿰 무용단의 첫 작품 ‘누구라도 그리하듯이’라는 작품이 20년 전 호암아트홀에서 발표가 되었다. 20년 후 같은 장소에서 발표된 2013 신화상생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번공연은 작년과 같이 김운미·쿰 무용단 단원들과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되었고, 신화,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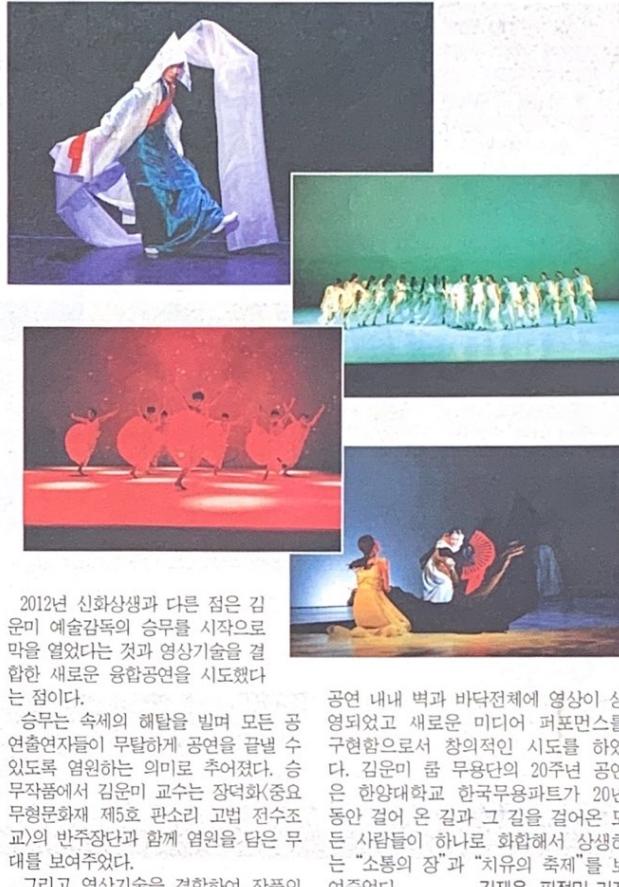


상생이라는 주제로 한국적 소재와 영상 테크놀로지의 융합댄스 퍼포먼스로 구현한 작품이다.

“2013신화상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즐거움과 고통 등 인간 삶의 순환을 춤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자 크게 겨울, 봄, 여름, 가을로 시놉시스를 만들었다.

계절이 지나고 또 다른 계절을 맞이 하듯 소중한 인연 또한 계절과 같이 찾아오기도, 그리고 스쳐가기도 하듯 얹히고 설키며 버무려져 있는 희노애락 속에서 삶의 진실을 찾기 위해 인간은 외로워지기도 한다는 점을 관객에게 말하고자 했다.

또 음양오행사상을 기초로 풀어낸 다섯 가지의 색에 의미를 담아 안무하였다.



2012년 신화상생과 다른 점은 김운미 예술감독의 승무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는 것과 영상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융합공연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승무는 속세의 혜탈을 빌며 모든 공연연자들이 무탈하게 공연을 끝낼 수 있도록 염원하는 의미로 추어졌다. 승무작품에서 김운미 교수는 장덕화(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관소리 고법 전수조교)의 반주장단과 함께 염원을 담은 무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상기술을 결합하여 작품의

공연 내내 벽과 바닥전체에 영상이 상영되었고 새로운 미디어 퍼포먼스를 구현함으로서 창의적인 시도를 하였다. 김운미·쿰 무용단의 20주년 공연은 한양대학교 한국무용파트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과 그 길을 걸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화합해서 상생하는 “소통의 장”과 “치유의 축제”를 보여주었다.

김재은, 피정민 기자

15th ‘묵간(墨間)’ K·U·M

김운미·쿰 무용단의 묵간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번 공연은 쿰 무용단의 악자인 K.U.M을 주제로 세 작품으로 구성되어 2013년 8월 17일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공연이 진행 되었다.

K.U.M이라는 주제는 무용단의 과거나 현재, 미래가 담긴 꿈의 상징으로서 15주년 묵간 공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영립, 서연수, 강요찬 세 명의 안무

가는 각자의 개성과 특색이 담긴 작품을 선보였으며 한국의 멋과, 현대적인 춤사위에 오감, 남성성이 드러나는 안무를 감상 할 수 있었다.

이영립안무의 “그 곳에서”는 장구와 소리의 호흡이 돋보인 작품으로, K-Korean beat의 한국적 감성을 드러내었고 끝없는 번뇌를 춤으로 씻어내고자 하였으며, 뻗은 움직임과 내재적인 움직임이 상반되면서 주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마음을 울리는 무용수들의 춤 연기가 인상

적인 작품이었다.

두 번째 작품 서연수의 “Red symphony”는 서연수만의 독특한 몸 소리로 열정적인 오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여성들만이 이루어내고 보여줄 수 있는 선율, 감인함, 그들의 에너지가 U-Uniqueness 함을 돋보이고 있다. 드럼 피아노 기타의 현대적인 음악에 한국무용 춤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통한 주제는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보였으며, Red라는 여성의 해석과 symphony라는 몸의

조우로 새롭게 쓴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강요찬의 “행하다”는 남성 무용수들로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인간은 가능한 완벽해지려 노력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M-miracle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 에너지가 소멸할 때 까지 살다 죽는 것이다’라는 인간의 기적을 남성상으로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수행, 일상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공주희 기자



Hot focus!

김운미 교수님, 무형문화재위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위촉

2013년 5월,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김운미 교수님은 새롭게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9개 분과 중 무형문화재 위원(무용분야)에 위촉되었다.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로서 9개 분과(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등록)·해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문화재 국외반출,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김운미 교수님은 무형문화재 위원에 이어, 11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

예술정책을 이끌어 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부터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고, 이후 문화예술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인으로 김운미 교수님을 임명하였다.

같은 해에 문화재 위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패거를 이룬 한 해로,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진영 기자



Hot focus2

사회복지법인 보육원이든아이빌 기부금 전달

2013년 12월 26일, 성동구 하왕십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보육원인 이든아이빌에서 김운미 무용단의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든아이빌은 1950년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육 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날 김운미 교수님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향후 지속적인 후원과 함께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보육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부금 전달 후에는 보육원 생활공간을 둘러보았고, 다음 후원을 기약하며 마무리 하였다. 박진영 기자

자유칼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2012년 겨울, 두 달 동안의 뉴욕 맨하탄 여행을 통해 신선한 예술적 충격과 자유로움을 경험한 후 2013년 3월,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결정하였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국과 미국의 생활방식, 교육방식의 차이점을 궁금했다.

입학허가서를 받고 설레는 마음도 컷지만 걱정이 앞섰다.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멀리 다른 나라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하기에 덜컥 겁부터 났다. 하지만 보다 큰 세상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며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싶어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결정했다.

그렇게 떠난 어학연수! 술술 풀릴 줄 알았던 나의 미국생활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말았다. 처음 나의 미국 생활 1, 2개월은 말을 못해도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고 자신감이 있었지만, 4개월쯤 접어들 때 슬럼프가 찾아왔다. 수업시간 내내 한 마디도 못하고 나올 때도 있었으며 배가 고프지만 말하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굶기도 했었다.

가족들이 그립고 친구들과 수다가 그리웠다.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애초의 목표는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처음 어학연수를 떠날 때의 마음가짐을 들이키며 나 자신과 약속을 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의 슬럼프가 지

나가고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한 후 나는 활력을 되찾았다. 못하니까 배우려 온 것이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손짓, 발짓을 해가며 웃으며 의사소통을 하고, 교수님과 같이 고민을 나누며 질문을 반복했다. 영어 실력이 훌륭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버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수업을 하면서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대화할 때가 있다. 전통의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보고싶어 하고 궁금해 한다.



하지만 다들 말이 유창하지 않기에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공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동영상으로 한국무용을 보여줬더니 여전히 기서 물려와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았다.

의상이 너무 예쁘고 음악이 독특하다고 직접 보고 싶다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 나는 어깨가 으쓱 해졌고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이구나 싶었다.

미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이나 학교 내 카페테리아에서 한국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미국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1. 2등은 늘 한국인들이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적순위에 대해 크게 집착하고 있지 않는 듯 보였다.

10개월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힘든 경험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학연수 경험을 통해 아무도 간접하지 않는 자유 속에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여러 가지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이전의 나보다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싶다.

혼자 먼 나라에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멋진 경험을 하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 행복했다. 그것이면 충분히 값진 경험이라 생각한다. 이번 어학연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12학번 이예나 학생



Talk! Talk! Talk!!

2014년 여러분은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 수업 강의평가와 1/N 분류 수업에 대해 -

학교와 학생들이 오랫동안 다뤄왔던 수업일수 문제가 '수업 일수 16주 복구'로 결과를 맺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수업일수 조정위원회 측은 수업 일수는 2014학년도부터 16주로 복구하게 되어, 중간고사 기간은 없는 것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에 대해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수업일수의 복구로 등록금 인상·인하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좀 허지지 않아 결렬됐다. 한양대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가 존재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학교 측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일반 학생들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는 의문이다. 비단 한양대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학과의 수업문제도 쉽게 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과과정에서의 수업은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파트별이 아닌 교수의 인원수로 배정된 학과 수업이 구성되고 있다. 현대무용

/발레 파트는 각각 두 명인 가운데 한국무용 교수는 한 명인 관계로 한국무용관련수업이 1/5로 배정되었다. 학생 수는 파트당 12명으로 총 36명의 학생이 기초필수를 비롯하여 전공핵심, 전공심화 등 전공에 따른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무용파트 학생들은 한국무용과 관련된 수업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관련수업을 다 넣고도 현대무용/발레수업을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무용이라는 개념이 파트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과수업임은 맞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수업의 선택권을 등등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하듯이, 교수가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강의평가는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해, 추후 강의에 이를 반영하여 강의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강사와 수강생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제도적 소통 통로라는 점에 더욱 중요한 제도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강의평가의 실효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강의평가의 다음 학기 수업 반영정도를 매우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의 학생들이 반영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반영되는 편이라고 답한 대학생은 11%에 그쳤다. 강의평가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객관식 문항은 한 번호로 쭉 체크하고, 주관식 문항은 공란으로 두는 식으로 대충대충 강의평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서울대학교는 이번학기부터 모든 강의의 평가를 전면 공개하고 모호한 평가항목을 바꿔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학기부터 시범 적용하여 애

로사향이 따르지만 학생들의 알 권리와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양대학교도 강의 평가 시스템을 공개한다면 현 시점에서 수업의 질적 향상이 가시적으로 보일 것이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이 수준 높은 수업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세부전공에 대한 수업의 선택권을 등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수업 분류를 1/N이 아닌 1/3 수업 분류 개편을 바라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은 1/N 수업 방식을 택했지만 개편을 통해 수업의 선택권을 등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어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교수와 강사진 역시 문제를 바로 알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가 정당하고 올바른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학과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

김지연 기자



영화리뷰

“변호인(The Attorney)”

2013년 12월 개봉! 8.95의 평점으로 흥행되어지고 있는 영화가 새해가 바뀐 지금도 상영되고 있다. 송강호라는 배우만으로도 기대되는데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의 논란으로 영화 개봉전부터 많은 이슈화가 되었다. 다른 아닌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韓노무현.

대중적 흙먼드라마로 구성된 이 영화는 바로 “변호인”이다.

19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한 변호사

의 이야기이다. 영화 초반 지금 현 사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사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영화 중반부터 상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객관적이고, 보다 상식적으로 영화를 대하려는 나의 태도는 잠시, 내 감정을 주제할 수 없이 화에 뜻이겨 눈물을 쏟아냈다.

송강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외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 송강호의 대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울림을 갖고있다고 생각하며 뜨겁고 경이로운 그의 연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경주 기자



사진 이야기

N서울타워, 대한민국 탑 랜드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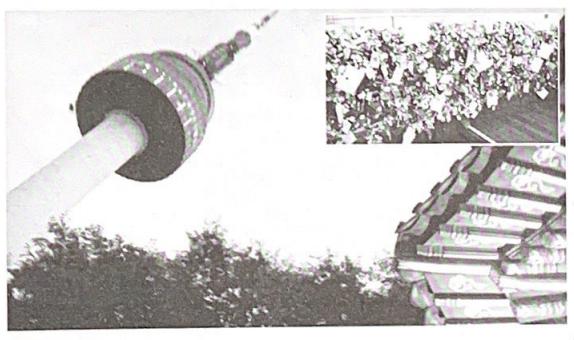
남산타워는 1년 동안 여행객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명소로서 국내·외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데이트 장소이며, 힐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남산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찾은 모습과 지금의 남산타워 모습은 많이 변화하였다. 보는 것, 먹는 것, 체험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변화하였고 풍성해졌다.

남산은 명당을 두른 명산이다. 현재

의 남산은 다양한 휴식공간과 도서관 등 여려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남산의 팔각정은 탑골공원의 정자를 본떠 만든 것이며, 숲이 잘 보호되어 도심지역에도 꿩, 다클취 등 산짐승이 많다.

남산은 수치와 오류의 역사를 지녔다. 1970-80년대의 남산은 공포정치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남산에 드리웠던 어두움이 길었던 뒷에 남산의 현재 모습은 더 밝고 빛나 보인다.



Diary of hope

새로운 시작 그리고 성장

힘들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고3 입시를 치르고 저의 목표였던 한양대학교에 합격하여 새내기로 입학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곧 2학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대학 생활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 다른 환경에서 온 동기들과의 만남은 설렘 반 어색함 반으로 시작했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동기들과 금세 친해지고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를 냉내기도 하며 다시다난한 1학년을 보았습니다. 공연과 행사 등 학교 활동에 참여하며 선생님, 선배, 동기들과 같은 무대에 서고 연습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되어 자율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면서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생활과는 다르게 모든 결정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편하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때에는 짜여진 시간표에 맞추어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무용을 해오다가 대학생 활동을 하게 되면서 선택에 의해 수업을 정하고 가르쳐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표현 방식을 더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1학년이 끝난 지금,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대학생 활동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얹힐 것입니다.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하여 초심을 잊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3년 후 이 시간 지난 대학 생활을 되돌아 봤을 때 후회 없는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3학번 최은영

4년의 시간들,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하며~

2014년 2월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했던 '졸업'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설레는 마음으로 한양대학교의 학생이 된 스무 살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 톱니 원했던 한양대에서의 스무 살 학교생활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마법이 가득하고 설레던 기억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양대역 2번 출구를 나와서 본관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원했던 곳을 이렇게 다니는 것에 감사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다시 재충전을 하여 새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를 가고 싶어했던 계기는 열정적이고 멋진 공연을 보고 제 머릿속에 그때의 공연 한 장면 한 장면들이 계속 맴돌고, 그런 열정 기득한 무대에서 함께 춤추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한양대학교만 바라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4년 동안의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4년 시간 속에서 많은 작품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신 교수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함께 땀을 흘리고 울고 웃고 한 동기들, 선배들과의 소중한 시간들 또한 잊지 못할 것입니다. 4년 이란 시간동안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학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디서든 한양대 출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자랑스러운 '한양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양' 사랑합니다!

“들꽃은 햇빛을 찾아 옮겨 다니지 않는다”

차가운 바람으로 마음까지 무뎌지던 중, 어느 글 문구 하나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들꽃은 햇빛을 찾아 옮겨 다니지 않는다” 이 글을 처음 본 순간 ‘저런 들꽃이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심 있어 보이는 저 들꽃의 존재가 가치 있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이 한 줄을 통해 글을 찾아보게 되었고, 읽고 또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9년 전 처음 한양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를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푸릇푸릇 생기발랄한 신입생으로서의 HKJ에 실린 제 첫 글도 떠올려봅니다. 그때의 희망하고 그дан 포부들이 지금까지 almam(이루어졌는지도) 뒤풀어집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한양인으로서, 김운미 교수님의 제자로서 15주년에도, 20주년에도 교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춤을 추고 공부하며 한양의 역사 속에서 함께 숨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는 어릴 적 제가 그리던 그만큼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는 제가 시작했던 이곳, 한양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알고 꿈꾸지만 환상과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그 행복을 만나는 2014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꽃은 햇빛을 찾아 옮겨 다니지 않는다.’

그렇다!

햇빛도 들꽃을 찾아 두리번 거리지 않는다!

모든 때가 지금이고, 모든 곳이 여기다.

무엇을 따로 하려, 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현주의 <공> 중에서
김운미 쿰 무용단 정단원 김민조

2013 김운미 교수님 동정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김운미 교수는 올해 무용단 활동 20주년과 더불어 여여 경사를 맞으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운미 교수는 2013년 5월에 무형문화재 위원(무용분야)에 위촉되었으며, 11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1월 9일 오후4시, 8시에 호암아트홀에서 김운미 무용단 20주년 기념 공연인 '2013 신화상생'을 공연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고, 이외에도 한 해 동안 다양하고 의미 있는 공연을 펼쳤다.

11월 23일에는 한양대학교 IT·BT관에서 한국무용사학회와 우리춤

연구소가 공동주최인 제7회 '융합적 담론으로 본 한국예술의 이해와 미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학술활동과 더불어 8월과 11월에 발간된 우리춤과 과학기술에 '관소리 벌립과 청곡 춤에 관한 상관성 연구', '기록으로 본 북춤의 형상과 의미'를, 9월에 발간된 한국무용기록학회지에 '무용가 이미라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에 '무용경연대회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2월 26일 M극장에서 김운미 교수 문하 박사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제1회 한양우리춤 포럼·우리춤,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열다'를 개최하여 융합 공연의장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김운미 교수는 2013년에도 예년과 같이 지도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이는 동시에 다양한 결실과 함께 풍성한 한 해를 마무리했다. 2014년도 밝고 힘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HKJ 만든 사람들을 ❤



HKJ (Hanyang Korean dance Journal)

HKJ는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무용계의 우체통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계좌번호안내>

국민은행 : 박진영(HKJ신문) 280601-04-164329
E-MAIL : dambicom@hanmail.net